**🚀 랭체인톤 발표 스크립트 (15분 최종)**

**발표 목표:** 청중이 '세봇이'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기술적 차별성과 향후 비전까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1부. 오프닝 및 문제 정의> (약 4분)**

**(슬라이드 1: 타이틀 화면 )**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처음이라'** 팀입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부가세 전문 챗봇이 사용자의 세금 비서가 되어, 복잡한 세금 업무를 혼자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2: 목차)**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챗봇 '세봇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봇이'의 **핵심 기능을 시연**하고, 그 구현 배경이 된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내린 결론**과 저희 팀의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3: 간지)**

그럼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되었던 **불편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4 )**

지금은 7월 첫주. 바로 오늘부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세무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맡았다가, 국가에 전달해 주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급'과 '가산세'** 때문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당연한 의무를 넘어, 내 돈을 돌려받고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저희 팀원 중 한 명인 **은서님**은 지난 1월, 바로 이 신고 기간에 세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5)**

은서님이 세무서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을 한가득 들고 오신 동네 식당 사장님부터, 노트북으로 작업 내역을 보여주시던 젊은 프리랜서 디자이너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사업의 종류와 나이에 상관없이 이분들의 질문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세금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공제 되는 거 맞나요?"**

**"홈택스는 복잡하고 세무사 비용은 부담돼요."**

슬라이드에 계신 60대 임대사업자 어르신처럼, 모두가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작아지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의 진짜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금은 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곳이 없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핵심이었습니다.

**(슬라이드 6)**

앞서 말씀드린 세무서에서의 경험은 저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까?' 저희는 그 원인을 세 가지 대표적인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내 상황에 딱 맞는 **세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둘째, 관련 정보를 찾으려 해도 너무 **복잡하며,** 셋째, ChatGPT 같은 AI에게 물어봐도 시시각각 변하는 세법 때문에 **'환각 현상'**, 즉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정확한 원본 문서'**, 즉 국세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저희 해결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부. 솔루션 '세봇이' 소개> (약 2분)**

**(슬라이드 7: 간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어려움에 대한 저희의 해답, 챗봇 **세봇이**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8)**

저희는 앞서 정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봇이'를 두 가지 큰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먼저 **'정보의 부정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RAG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정답지로 삼아,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환각 문제를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용어 해설부터 신고 기준까지 모든 안내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reamlit 기반으로 간편한 UI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과정 없이 부가세 관련 질문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봇이는 정확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렇게 번거로운 실무 과정까지 자동화하여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슬라이드 9)**

기존 홈택스에는 세금비서가 있습니다. 세금비서와 과 '세봇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입니다.

(왼쪽을 보며) 기존 홈택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복잡한 메뉴 구조를 공부하고, 올바른 서식을 찾아 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노력이 사용자에게 있었죠.

(오른쪽을 보며) 하지만 세봇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저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의 상황만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봇이'가 알아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알려줍니다.

즉, **사용자가 시스템에 맞춰야 했던 방식에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맞춰주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3부. '세봇이' 핵심 기능 시연> (약 7분)**

**(슬라이드 5: Streamlit UI 시연 화면)**

자, 그럼 은서님이 세무서에서 마주했던 하루를 '세봇이'와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연 파트 1: 실시간 세법 상담 - Q&A 기능)**

먼저, 세무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화면에서 직접 타이핑)** 💬 민원인: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하는데,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세봇이 답변 확인)** 🤖 세봇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중략) ...반면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도 가능합니다. **(출처: 2024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p.5)**"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실제 사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직접 타이핑)** 💬 민원인: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자꾸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래요. 이거 꼭 해줘야 하나요? 안 해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세봇이 답변 확인)** 🤖 세봇이: "좋은 질문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중략) ...'지연발급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자 안내서 p.15)**"

보셨나요? '세봇이'는 이렇게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시연 파트 2: 신고 실무 자동화 - 계산 및 정리 기능)**

하지만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 신고를 위해서는 계산과 정리가 필요했죠. 사장님들이 영수증 봉투를 들고 왔던 이유입니다. '세봇이'는 그 과정도 돕습니다.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 기능으로 전환)**

먼저, 간이과세자인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업종으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을 선택하고, 연 매출 6,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결과 확인)** '세봇이'는 즉시 업종별 부가율 4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240만 원**이라고 계산해 줍니다.

**(화면에서 '증빙자료 정리' 기능으로 전환)**

다음으로, 가장 머리 아픈 증빙자료 정리입니다.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매입자료 엑셀 파일을 '세봇이'에게 업로드합니다.

**(결과 확인)** '세봇이'는 즉시 파일을 분석하여 공제 가능한 총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이 왜 공제에서 제외되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봇이'는 **질문 답변부터 계산, 정리까지 부가세 신고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4부. 기술 스택 및 향후 발전 방향> (약 2분)**

**(슬라이드 6: 기술 스택 및 데이터 흐름도)**

이 모든 것은 **LangChain, GPT-4o, FAISS, Streamlit** 등의 기술 스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저희는 국세청 문서를 잘게 쪼개 저희만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질문 의도에 가장 적합한 근거 자료를 찾아내 GPT가 거짓말 없이 답변을 생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첫째, 홈택스 API 연동**으로 파일 업로드조차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를 구현하겠습니다.
* **둘째, 종합소득세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개인 사업자의 모든 세금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 **셋째,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먼저 찾아 제안**하는, 진정한 개인 맞춤형 AI 세무 비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5부. 마무리> (약 1분)**

**(슬라이드 7: 팀원들의 사진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

'세봇이'는 책상 앞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무 행정의 가장 바쁜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가장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가 세금 걱정 없이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 '세봇이'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